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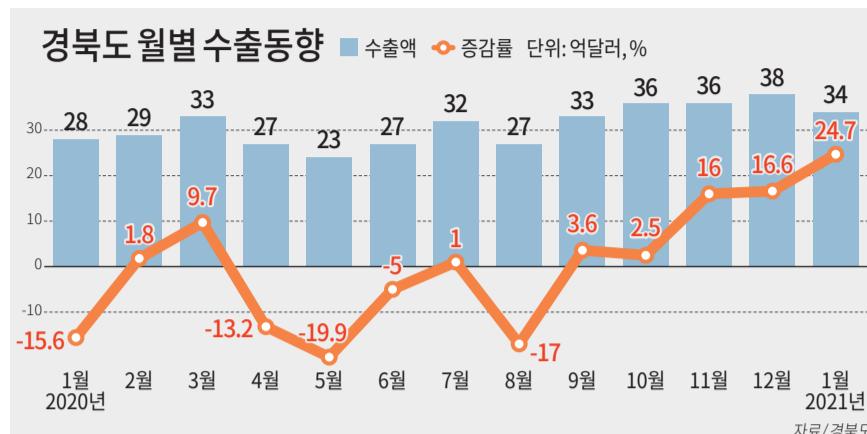
# 경북도, 올해 수출 3.9조 '청신호'

전년 28억달러 대비 24.7% ↑  
올해 1월 국가 수출 480억 달러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경상북도 올해 첫 수출이 전년 동기 27억 6000달러 대비 24.7%가 증가한 34억 4000 달러(약 3조 9000억원)를 기록하면서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대유행으로 전세계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올해 1월 국가 수출은 4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431억 달러 대비 11.4%의 증가세를 보였고 경북도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올해 1월에는 최고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월은 비대면산업 호조에 따라 경북도 주력 수출 10대 품목 가운데 무선통신기기부품, 무선전화기, 광학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 7개 품목이 증가세를 나타내며 수출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수출기업을 위해 온라인 해외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3월 동남아 지역을 시작으로 온라인 무역사절단을 연간 16회 운영하고, 작년에는 전면 취소되었던 해외전시회에도 오프라인 상품전시

와 온라인 상담이 결합된 융합형으로 총 19회 참가한다.

신북방남방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화상수출상담회도 8회 정도 개최하고, 큐텐, 라자다, 아마존, 아베이 등 글로벌 온라인몰에도 150개사를 입점시키고 해외 KOTRA 무역관과 연계한 맞춤형 온라인 수출상담도 지원한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metroseoul.co.kr

## 체험·체류형 '남원 관광인프라' 구축 순항

함파우유원지 일원 옛다솜 이야기원 구 비사밸콘도 부지에 문라이트파크

남원시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광한루원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관광지와 연계해 동적인 체험형 관광시설을 도입하고자 유원지 지정 이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함파우유원지 일원에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등을 추진 대표관광도시 남원의 힘찬 도약을 준비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174억 원을 투입해 사랑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

기 정원과 사랑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에 정식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대표적인 핵심 사업으로 켄싱턴리조트 옆에 지난 28년간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구)비사밸콘도 부지에 사랑과 달을 주제로 하는 미디어아트 시설인 문라이트파크를 조성하고, 그 밖에도 남원관광지 연계코스 개발, 상설공연프로그램 운영, 관광브랜드 개발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383억원을 투입해 남원관광지 내 준향테마파크와 함파우소리 체험관, 김병종 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총연장 2.16km의 관광형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주변에 70m 높이의 짚타워를 설치해 출발하는 2개 코스의 짚와이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모노레일 구간 파일시공과 차량제작을 완료, 계획된 3개 승강장 중 출발지인 준향정 거장에 대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춘향제 이전 개통할 계획이다.

/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

## 신안군,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예방 앞장

국내 야생조류 피해 연 800만마리

신안군은 야생조류의 투명유리창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청사 건물 4개동을 대상으로 충돌방지 스티커를 부착하였다고 17일 밝혔다.

건물에 설치된 유리는 투명성과 반사성으로 야생조류가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변을 비추는 착시현상 때문에 자연환경으로 인식하여 충돌하는 등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조류는 36~72km/h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유리창 충돌 시 큰 부상을 당하거나 폐사하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건물유리창과 투명방음벽에 충돌하는 야생조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에서는 연간 800만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국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

고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연간 10억 마리, 캐나다에서는 2500만마리가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안군청사에서도 최근 1년 동안 되지 빼고, 방울새 등 60여마리의 야생조류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야생조류 피해 방지를 위해 청사 본관, 보건소, 의회, 별관 등 4개동 1500m<sup>2</sup> 면적의 유리창에 충돌방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번에 부착한 스티커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저감방안으로 충돌방지 효과가 국제적으로 입증된 제품이다. 또한 유리표면에 남은 점은 전체면적의 2%로 유리창의 채광, 풍광, 투명성이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 맨금류 스티커에 비해 내구성이 높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남=안행주 기자 abcd@

여수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주문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씽씽여수' 3월 출시를 앞두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공공배달앱 '씽씽여수' 가맹점에게는 첫 주문 시 3천 원 할인 이벤트(가맹점당 30만 원 한도) 비용을 지원하고, 주문수수료가 주문금액의 2%로 저렴하다. 특히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10% 할인 판매하는 지류형·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 가능하고, 가맹비, 광고비 등 추가비용은 일체 없다.

주문수수료 2% 중 0.1%는 모객을 위한 프로모션에 사용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가맹점 관련 문의사항 및 가맹신청은 (주)만나플래닛 콜센터로 하면 된다.

/전남=김용학 기자 jjacecom@

## 예천군 곤충연구소, 꿀벌 신품종 육성 주력

5개 품종, 격리육종장서 개량

예천군 곤충연구소는 꿀벌 신품종 육성과 화분매개 수정별인 호박벌 보급 확대, 식용곤충산업 활성화,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꿀벌 신품종 육성을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에 꿀벌 유전자원으로 등록돼 있는 5개 품종을 남해 주도, 축봉도 등 격리육종장에서 꿀 수집능력, 산란력, 질병 저항성, 월동성 등을 개량할 계획이다.

특히, 벌꿀 다수화 신품종인 '장원' 기본종을 전국 농업기술센터와 여왕벌 양성 사업자에게 유상 보급해 양봉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4년간 공동연구비 3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양봉산물 다수화 및 질병 저항성이 우수한 신품종을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 육성하기로 했다.

곤충연구소 주력 산업 곤충인화분매개 곤충 호박벌 완성봉군 3000통, 우량 여왕벌 2만수를 전국 과수·시설원예 농가를 비롯한 수정별 생산업체에 분양하고 체리, 백향과, 무화과 등 아열대 작물에 대한 방사 실험으로 사용작물을 다양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용곤충 농가를 위해서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곤충자원 선별 및 소재화를 추진하고 기업체는 상품개발 및 판매를 담당해 나감으로써 농가는 곤충사육 및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스타상품 개발, 유통라인 확대, 곤충자원의 가능성 흥보강화로 곤충농가들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지역 곤충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곤충대학, 양봉대학을 1년 과정으로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경북=김귀열 기자

## 부산시, 디지털성범죄 뿌리 뽑는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 추진

부산시는 텔레그램 'n번방' 등 다변화된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지원을 위한 '2021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1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의 3

대분야는 ▲ 피해자 지원 ▲ 시민 참여 인식개선 ▲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한 2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불법 활동물 삭제 지원, 의료, 수사·법률 연계, 심리치료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 영암군 민속씨름단, 3체급 장사 등극 '쾌거'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합천군민체육관에서 주관한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와 한라장사, 태백장사 등 3체급 장사에 등극하는 눈부신 쾌거를 거뒀다.

지난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경상남도 합천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올해 첫 대회인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은 3체급에서 정상자리에 오르면서 모래판의 최강구단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1일 펼쳐진 태백장사 결정전에서는 올해 영암군민속씨름단에 새로이 영입된 허선행 선수가 4강에서 신흥강호 올주군청 노범수 선수를 2대 1로 물리치

고, 장사결정전에서 화려한 기술에 앞세워 수원시청 문준석 선수를 3대 2로 극적으로 승리하며, 태백장사 등극과 함께 개인통산 2번째 태백장사에 올랐다.

또 대회 세째날인 13일에 펼쳐진 한라장사 결정전에서 오창록 선수가 용인백옥쌀 우형원선수를 3대 1로 가볍게 제압하면서 개인통산 7회째 우승하면서 한라급 절대강자로 우뚝섰다.

넷째날인 14일에는 2회 연속 천하장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장성우선수가 관록의 올주군청 정경진 선수를 3대 1로 압도적인 실력 우위를 보이면서 또 한번 백두장을 차지했다.

/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